

A person with long, dark hair is crouching on a dark, textured rock. Their hair is blowing in the wind, creating a dynamic, flowing effect. The background is a bright, cloudy sky. The overall tone is dramatic and evoc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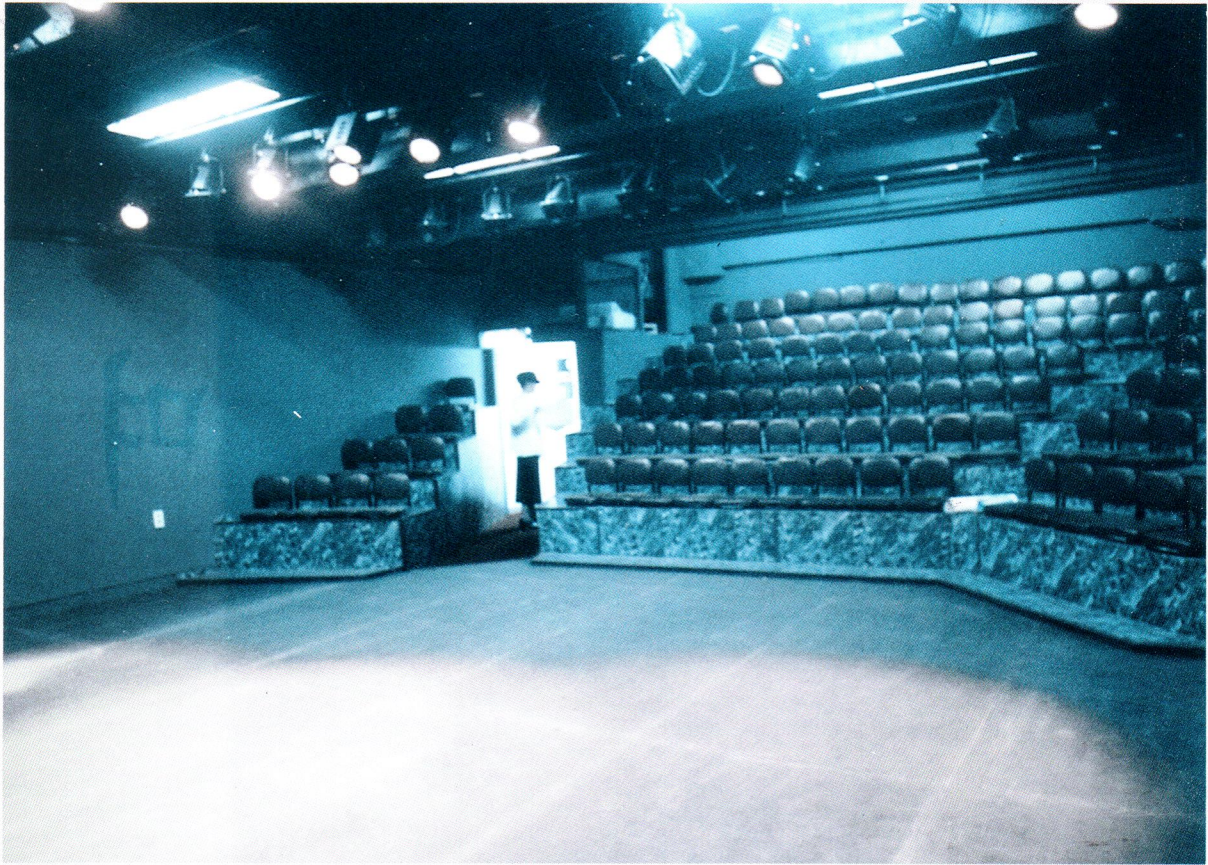
1995
고도를 기다리며
아직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

95.5.16 ▶ 6.4

연당소극장

(동래지하철맞은편/문의:556-2232)

극장 전경



극장/극단 명칭의 의미

- 연 당
薦堂 : 제비집 - 지역문화의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복돋는 둥우리
演堂 : 연극하는 장소
漣堂 : 현재 극장이 위치한 곳이 옛날 연밭이었다.
- 극단명 개칭 : 〈부두극장〉 → 〈부두연극단〉
극단활동을 10년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해체,
재구성하여 새로운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의 의미
- 전속극단 〈연사랑패〉창립
연극은 가슴으로 열병을 앓는 일방적인 짝사랑
의 감정처럼, 무조건적인 “감동”으로, 철저한
“희생정신”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단체 또는 패거리

1995. 고도를 기다리며



제작
연당소극장
원작
S. 베케트
연출
이성규
출연
디디/김윤석
고고/하현관
뽀조/박승규
럭키/김영웅
소년/신창선
무대/최재훈

1995.5.16 ~ 6.4
토일요일 : 오후 4시, 7시
평일 : 오후 7시 30분
연 당 소 극 장

베케트의 작품세계



사무엘 베케트는 20세기 후반 30여년 동안 세계의 연극계를 지배했다. 그는 시로 출발하여 초창기 창작생활의 절반(1934~51)을 실험적 소설에 바쳤다.

그가 연극 작품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당시 쓰고 있던 소설 「말론 죽다」의 지겨움으로 부터 잠시 해방되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문제의 작품 「고도를 기다리며」는 1948년 10월에 시작하여 49년 1월에 완성 시키므로써 채 3개월도 걸리지 않고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이 1953년 빠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베케트 자신은 물론 그 공연에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케트의 창작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극장은 연일 만원이 되었고 관객이 넘쳐 흘렀던 것이다.

불란서 초연 400회, 영국 257회 공연을 기록하면서 5년 뒤인 1958년까지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극을 보았다. 그러나 이 극을 본 사람들이 모두 공감하거나 호감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통속적인 극들이 판을 치던 당시의 관례를 과감하게 깨어버린 이 극에서 관객들은 당혹감을 느끼면서 광대극 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공연이 거듭되면서 사람들은 이극을 자신들의 인생과 연관시켜 볼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57년 샌프란 시스코의 Actdr's Workshop은 이 작품을 가지고 San Quentin 감옥소에 위문 공연을 갔다. 연극을 본 경험은 많았을 리 없고 이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을 죄수 관객들은 이 극에 대단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통, 좌절, 무의미한 기다림, 희망이 허물어지는 씁쓸함, 흐르면서 멈춘 듯 까지 않는 시간 등 이 작품이 이야기 하는 모든 것을 분명히 이해한듯 했다. 이후 이 교도소의 죄수들 몇몇은 스스로 극단을 만들어 이 작품을 공연했고 이 극단은 오늘날 San Quentin Company라는 미국 연극계의 중요한 실험 극단으로 발전했다. 베케트는 연극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와 이미지는 이미 그의 소설에서 형성된 것으로 근본적인 인간 상황을 규정하는 방법의 탐색이라 할수 있겠다. 외부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그의 작품에서는 부차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전혀 부정된다. 「파국」(1982)은 체코의 하벨이 투옥된 것에 항의하는 국제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쓰여진 것이고, 「어디서 무엇을」(1984)은 고문과 전체적 정부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초점이 일반화되어 관객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보지 않을 경우 그 상관성이 매우 약하다. 보다 이전에 나온 작품들인 「나는 아니야」(1973)에서 「자장가」(1981)에 이르는 독백극의 문자 그대로 '정신의 연극'으로서 극도로 단순화된 연극성과 정확성과 경제성이 요구되는 대사로 이루어 진다. 베케트가 1989년 사망하기 얼마전에 쓰여진 작품들은 이처럼 인간의 존재를 아주 가늘고 약한 것으로 축소시키면서, 또한 연극을 거의 부동성, 불가시성, 더 이상 축소할수없는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축소하면서 역설적이게도 그래도 끝까지 갈 수는 즉 자아나 연극을 제로로 환원시킬 수는 없음을 증명한다. 『고도를 기다리며』와 마지막의 극단적인 연극들 사이에 그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불리어지는 「유희의 끝」(1957), 「크랩의 막 테이프」(1958), 「행복한 날들」(1961)이 있다. 이 작품들은 그의 왕성한 창작열을 반영하듯 장황한 만연체의 대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주제나 이미지는 첫작품이나 마지막 작품들과 같은 것들이다. 「유희의 끝」에서 햄과 클로브라는 두 인물은 움직임과 고착, 삶과 죽음, 안과 밖, 희망과 절망, 보이지 않음과 볼수 있음 등을 상징하면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부조리한 인간의 실존을 탐색하는데 베케트가 사용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마지막 테이프」는 끊임없이 실험을 거듭하던 베케트가 새롭게 시도했던 '모노드라마'로서 눈도 귀도 시원찮은 노인 크랩이 생애 마지막 녹음테이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블레데미르와 에스트라곤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랩의 마지막 테이프와 현재의 순간 사이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는 늘 세상에서 고립되어있으며, 항상 같은 희망과 절망에 의해 고통을 겪는다. 30년전에 녹음된 마지막 테이프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나의 가장좋았던 시절은 갔다..”고 말하고 있다. 30년이 흘렀는데도 그는 여전히 테이프를 들으며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영어로 쓴 마지막 긴 작품인 「행복한 날들」에서는 위니가 모래더미속에 묻혀 있어서 부동성이 절정에 이른다. 처음에는 허리까지 오던 모래더미가 나중에는 목까지 오게 된다. 죽음을 눈앞에 둔 여주인공의 패활함은 고통스런 삶을 살아내는 인간의 끈질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신의 절망적인 삶에 대해 위니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대처하면서 그녀의 사고와 감정을 습관과 일상사에 국한 시킨다.

그녀는 사랑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려하지 않으며, 끊임 없이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소지품을 챙기고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것이다. 아방가르드 극작가들은 반극이라는 고통의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 말은 기존의 연극과 상반되는 연극을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리얼리티를 강조하는 자연주의의 관례를 버리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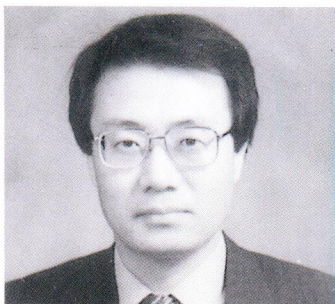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반극 작가로 부를 만한 작가는 사무엘 베케트 뿐이었다. 40년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고전이 되었으며, 베케트 극의 대사와 극작법은 이제 극장언어의 한 부분으로 공인되었다고 하겠다.

세계의 연극인들에게 미친 영향도 엄청난 것이어서 톰 스토파드, 해롤드 핀터 등에게 미친 영향 이외에도 현대 연극의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다.

동아대 영어영문과 교수

윤 여 복

삶의 존재 방식으로의 기다림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가 1953년 1월 5일 프랑스 파리의 바빌론 극장에서 초연 된후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고도의 존재에 대한 의문에 쏠려 있는 것 같다. 사실 이 극에서 고도는 극중 인물들의 절대적인 기다림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만 결코 무대위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관객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이극을 연출한 앨런 슈나이더(Alan Schneider)가 작가에게 고도는 누구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진 존재 인가를 물었을때 작가의 대답은 이러 했다. ‘내가 그답을 알고 있다면, 작품 속에 써 두었을 겁니다’ 작가 자신의 말로 미루어 보아 이 극에서 고도의 존재를 규명하는 작업은 무의미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극은 ‘고도에 대한 극’이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는 상황에 대한 극’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베케트는 부조리한 우주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논리적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노력과 그에 따른 좌절과 절망을 보여주는 작가이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 해줄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불확실한 우주와 함께 불확실한 아이덴티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삶의 부조리를 통렬히 느끼면서 자신의 우주와 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그러나 이 극에서 우리는 극중의 인물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의문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없다. 이 극의 순환 구조를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사건의 연속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고통만이 생의 시간들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다.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서 그들은 의미 추구의 욕망과 그것을 거부하는 우주와의 부조리한 상관 관계를 종식시켜줄 어떤 초월적 존재를 기다리지만 궁극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며 그들의 존재 방식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어. 이걸 정말 참을 수 없어.’ 라는 절규는 반복되는 순간의 집합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선택한 <고도>를 기다리는 일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상황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추구하는 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일이기도 하다. <고도>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규범이 있다면 그것은 불확실성이다. 예수와 함께 처형된 도둑들 중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한 사람은 파멸한 이야기는 예측 불허의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 상황의 상징이다. 단 하루의 시간이 경과한 2막에서 갑자기 뽀조가 장님이 되고 렉키가 병어리가 되어버리는 것과, <고도>가 한 소년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또 다른 한 소년에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매질을 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논리성과는 무관하게 예측 불허의 임의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부조리한 상태에 직면한 인간은 삶 자체에 고통과 절망감을 느끼며 그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죽음은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 낼 수 있는 유일한 의미는 무의미의

고통을 종식시켜줄 존재에 대한 기다림이다. 그러나 이 극에서 기다림의 대상으로서 <고도>는 불확실한 존재로 나타나며, 그가 가져 올 결과 역시 불확실하다. <고도>는 그자체의 의미 보다도 기다리는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기다림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생을 유지 시켜주는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함의 세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극중 인물의 인간관계이다. 그들의 인간 관계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기다림의 상황속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은 상대에게 인내와 사랑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의 개인 적인 고통을 이해할수 없는 한계와 이기적인 태도도 보여준다. 그들은 서로 상이한 가치를 추구하며 서로 상이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언쟁을 벌이며 서로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 하지만 서로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떠날수없다. 그 관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확인할수 없지만 타인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욕구를 벗어날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같이 고도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것은 헤어짐으로 해서 갖게 될 소외의 상태에 대한 두려움 에서 기인된것일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유지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묶여있는 그들의 모습은 고도에 대한 기다림 에 묶여서 자유를 상실 당한 인간의 모습이다. 생의 동반자로 나타나는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의 대등한 관계와는 달리 뽀조와 렉키는 지배와 종속의 인간 관계를 보여 준다. 뽀조는 렉키에 대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확신과 생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그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의미를 렉키에게 예측시켜버린 존재가 된다. 렉키는 그의 자유를 뽀조에게 줌으로써 뽀조에게 속박된다. 부조리의 세계 속에서 자유는 부담스러운 것이며 상호의존적인 예측의 상태는 보다 덜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버리고 상호의존적인 예측상태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나 고도에 대한 실체도 모르면서 습관적인 기다림 속에 있는 고도의 인물들은 부조리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것이다. “고도가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은 무엇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관객들의 의식 또는 무의식 속에 내재하는 어떠한 기다림의 대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기다림의 대상을 바꿀 수 있으나 기다림 자체에서는 벗어 날 수 없는 존재이다. 기다림은 이상, 꿈, 희망과 같은 단어가 존재하는 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며 인간 상황인 것이다.

부산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

손 홍 기

제작의도

1)고전은 자주 공연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인류의 보편적 정서에 이바지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간간히 셰익스피어의 명작들이 지금, 이곳의 의미로 재구성되고 있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1900년대 이래, 현대 연극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작품들로서, 양식상의 변화를 주도 하였던, 예컨대 표현주의→초현실주의→부조리극 등의 명작들을, 특히 그 작품이 가졌던 시대적 의미와 양식상의 실험 내용들을 면밀히 연구, 조사하여 지금 이곳의 의미로 재구성 공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곧 세계명작 연극 공부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그러한 취지의 출발을 알리는 첫 작품이 될것이다.

2)인간조건에 대한 철저한 탐구정신으로, 196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S.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는 문학 평론가 수잔 손탁이 포스터 모더니즘의 서곡을 알리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것이상으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으며 8만 여편의 정평있는 논문이 쏟아질 만큼 현대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당소극장에서는 서구의 부조리극과 한국의 무속극, 마당극 등의 양식상의 유사점과 인간조건, 그중에서도 삶의 유한성에 대한 비극적 상황을 특유의 해학적 놀이정신으로 극복한 한국의 심성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1995 고도를 기다리며'란 타이틀로 공연케 된것이다.

3)알기쉬운 연극, 재미있는 연극, 웃기는 연극을 해야 관객이 모인 다고 한다. 일면 그럴듯 한 말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구조식의 논리는 연극이 가진 힘과 기능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관객을 연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지나치게 설명적인 대사. 뻔한 이야기, 해픈 웃음의 구조로 된 사실주의 연극의 유행은 이런 잘못된 사고 방식이 낳은 폐해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고도를 기다리며』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단히 복잡함, 심각한 연극이다. 단편의 연극이 우리 삶의 조건을 송두리째 들여다 볼수 있게 할수 있다면, '가벼움'과 '경박함'이 판치는 곳에서 무서운 하나의 충격이 될수 있다면.

---연당이 바라는 제작의도이다.

“불행보다 더 우스운 것은 없다.”

- 아리러니와 환멸 에서 나온 일종의 자각의 웃음.

1)테마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우연히 내던져져 살도록 선고 받은 인간의 실존적 존재 양상이란, 부조리한 이 세계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절대적 존재로의 고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존재한다 따라서 기다린다.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도는 쉽게 나타나지않는다. 그런조건 속에서 시간을 죽이며, 소멸 시키며 견디 나가야 한다. 그것은 마

작품내용

치 역할없이 무대에 등장하여 무의미한 소리와 짓거리를 하다 사라져야 하는, 즉흥극 또는 막간극의 희극배우의 운명과도 같다. 이극은 최대한의 희망의 부재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인간구원에 대한 매우 원형적인 시적 메타퍼로서,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와 상황을 담은 현대인의 신화이다.

2) 줄거리

【제1막】 나무하나, 둔덕하나 있는 곳.

고고와 디디는 고도를 기다린다. 그러나 고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둘은 시시한 말장난과 게임으로 시간을 죽인다. 지나가는 여행객인 뽀조와 럭키가 나타난다. 럭키는 목에 줄을 매고 뽀조는 그의 주인인 것이다. 그들은 야단스러운 춤과 노래등을 보여주더니 사라져 버린다. 한 소년이 나타나 고도가 오늘은 못오지만 내일은 틀림없이 올것이란 전갈을 한다.

고고와 디디는 내일 또이곳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은신처를 찾는다.

【제2막】 같은 장소, 같은 시각, 나무에 잎이 달려 있다

또다시 이곳에서 재회한 고고와 디디는 나타나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다 지쳐버린다. 또다시 럭키와 뽀조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럭키가 병어리가 되었고 뽀조는 장님이 된것이다. 그들은 풀썩 쓰러져있다. 다시 일어나 가버린다. 소년이 또 나타나, 고도는 내일 올것이라고 전갈하고 가버린다.

고고와 디디는 목메달기로 하나 끈이 끊어져 실패한다. 둘은 또다시 기다리기로 하고 은신처를 찾는다.

3) 공연의 특색

1. 삶의 유한성과 윤회를 나타내는 백색 원(Circle)무대

- ㄱ. 간헐있다.
 - ㄴ. 순환한다.
 - ㄷ. 우주의 중심
- > 에 대한 오브제

2. 이중적 표현에 대한 균형

- ㄱ. 희극과 비극
- ㄴ. 구원과 저주
- ㄷ. 무의미와 신화

3. 무대에 표현된 시와 그림

--극(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가 되도록.

4. 막간극, 즉흥적인 배우의 역할찾기

--인생은 연극이요, 세계는 무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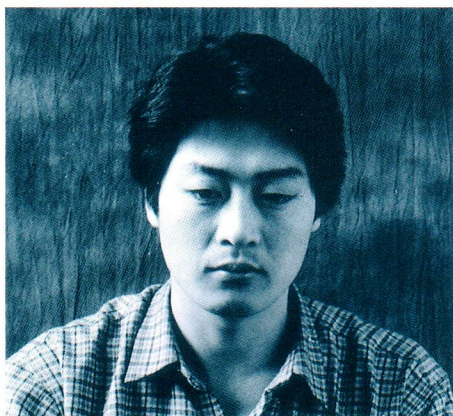
5. 광대쇼, 묘기, 곡예 등의 활용(신체표현)

6. 황혼의세계, 종말론적 분위기의 세계, 늙은이의 세계가 표현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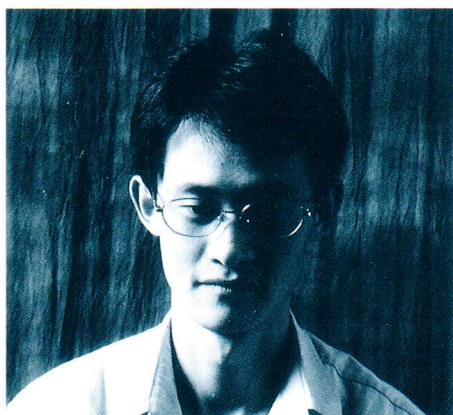
7. 동양적인 구도의 움직임. 마당극적 요소의 활용.

8. 한국인의 심성구조에 맞는 친숙한 표현이 되도록.

캐스트(CAST)



개한마리 들어왔네
주방안으로,
들어와서 순대를 슬쩍했다네.
요리장이 나타나서 국자로
다짜고짜 그 개를 때려 죽였다네



무얼하지?
기다리는 거지
좋아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은
무얼하지?
목메다는게 어때?



해는 광채를 잃기 시작했고
점점 더 파리해 지더니
광! 하고 끝이야
그리고 남이 달려와
리에게 달려 들거야 워!
이렇게 되는게 우리 인생이야



인간!한마디로
인간은 영양의 향상과
화장품의 발달,
오물위 제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의고 마르고...



그 분 무얼 하시지?
아무것도 하지않는 답니다.
그 분 수염 달렸니? -네
검은 수염이니?
아니면 황금색이니?
흰색 같은데요. 맙소사!



대표님!
나 이런 생활
더 계속 못 하겠어요
누구나 그런 소릴하지

연출 대담



연당 첫 작품으로 「고도를 기다리며」를 선택한 이유는?

24살 때 이 작품을 처음 읽고 나서 나에게 하나의 화두처럼 된 작품이다. 그것은 연극이 다룰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하나의 경이처럼 느껴 졌기 때문이다. 그때, “연극이 이정도 일 수 있다면 청춘을 바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 했다. 그것이 지금도 나를 연극에 매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연극을 하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도 겪었지만 새로운 전기를 만드려고 할때 마다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린다. 나에게서는 하나의 통과의례 같은 작품이라고 할까? 1978년 이후 (극단 마당/고도를 기다리며) 18년 만에 다시 만든다. 이 작품은 나에게 연극의 기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배우가 없어서 선택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 극장과 연극이 가진 중압감과 사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매어달리는 배우가 드물다. 연당에 남아있는 배우들은 최소한 그 무게를 감당하고 버텨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자기 헌신 없이 연극은 만들어 지지 않는다.

한국 사람으로서 국적있는 연극을 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한국에서도, 부산에 사는 토종 지방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세기말의 시대에 산다. 나의 심성 밑바닥에는 옛날 부터의 우리민족의 정서가 짙게 베어있다.그건 거부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정말 한국적인 연극을 할 자신이 없다. 생각과 느낌이 한국적인 전통적인 한국 연극에 닿아 있지 않고, 습득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21세기에 맞는 한국적인 연극은 무엇일까?”라고 늘 생각한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당신은 어렵고 애매한 작품을 주로 공연한다던데, 그것은 품잡기위한 것인가?

그렇다! 어슬픈 품이라도 잡지 못한다면 연극 행위는 너무나 비천한 노동이다. 나는 연극 행위를 도전과 모험 그리고 탐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자연히 어렵고 애매한 작품을 택하게 되고 품도 좀 잡는다. 뭐 안될 것 있나?

관객의 기호와 입장도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본다(분노) 자기들 끼리 노는 공연은 지양되어야 한다.

(웃으며)지들 끼리 놀고 싶으면 산속에서 하면 된다. 연극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건 관객과 함께 한다. 그렇다고 해서 관객의 속물주의에 내통하는 연극들, 요컨대 재미있는 연극, 쉬운 연극, 웃기는 연극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함정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연극은 결국 관객

을 극장으로 부터 멀어지게 한다. 나는 아직도 관객이 연극 속에서 진지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 관객을 낮춰 보지 말라.

그러나 「고도를 기다리며」는 너무나 서양적인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
너무나 동양적인 작품이다. 나는 부조리극이 동양인, 특히 한국인의 정서에 맞다고 생각한다. 한국인 만큼 삶과 죽음의 부조리를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 온 민족은 없다. 한국인은 오히려 그런 요소를 즐기는, 정말 연극적인 민족이다. 부조리극과 무속극은 통하는 바가 많으며 한국의 무당굿은 삶과 죽음의 부조리를 넘나드는 해학적인 한편의 부조리극이다.

당신은 주제에 맞지 않게 잘난 체 하고 외골수다 흥행도 생각하여야 하지 않나?
나는 흥행에는 어느정도 자신 있다 잘 알지 않나? 그러나 한편 나는 주류가 되기 싫다. 그건 평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뒤에 숨어서 꼬장치는 그런 역할이 좋다. ----- (변태)? 「고도를 기다리며」가 자기 작품인가?

작품으로 들어가자.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의 상징은? 재해석이 있는가?

윤곽을 조금 압축시키고, 친숙한 표현이 되도록 노력 했을 뿐, 내세울 것은 없다. 그것이 이곳의 정서로서 맞다면 그건 재해석 일 수 있다. '고도'에 대한 상징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 주의자들의 견해가 많다. '고도'에 대한 상징은 너무 포괄적이다. 무의미 하지만,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관객들의 마음이 극적 긴장을 일으킨다. 그런 태도는 이 작품의 주제와 맞닿아있다. 그러므로 그냥 그렇게 보며 상상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고도'라기 보다 기다리는 행위의 본질 그 자체이다.

이 작품의 주제는 지나치게 심각하고 철학적인 것 같다. 이 작품은 비극인가?

아니다. 이 작품은 가능한 사상과 철학을 배제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는 무지성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도 내용의 함축 때문에 철학적인 인상을 받는다. 그리고 이 작품은 희비극이다.

희극적 비극, 비극적 희극이라고 할까? 유모어가 없다면 인생은 너무 비극적이다. 그런데 그런 웃음은 기묘하게도 너무 냉소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조소와 냉소의 싸늘한 코메디 한편을 보고 오히려 삶의 의미를 다시 창조하게 만든다. 이 작품은 그래서 한편의 현대인의 신화와 같다.

알 듯, 모를 듯 어려운 말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달라.

‘알듯, 모를듯’ 그것이 이 작품의 묘미다. 나를 너무 욕하지 말고 이해해 달라. 나는 가능한 한 원작에 충실한 답을 하려고 할뿐이다.

이 작품의 특색을 몇 가지만 언급 한다면?

첫째, 연극자체, 즉 시간과 공간도 하나의 오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둘째, 인간은 자신과 무 사이에 언어의 장벽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작품은 의미가 존재 한다는 암시가 되어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의미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품이다. 셋째, 하이데거의 인간의 조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주제로 할 뿐 아니라 연극적으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인간이 무의미 속에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역할을 생각해냄으로서만 가능하다. 배우(인간)는 우연히 내던져져무대로, 세계로 살아가지 않으면(즉흥극적 역할놀이, 흥내)안된다. 즉, 이 연극은 '인생은 무대요, 삶은 연극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네째, 시적인 패턴과 리듬. 다섯째, 형식과 내용의 일치이다.

이 작품에서 인간을 존엄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느냐?

외면적 표현은 인간을 냉소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방향의 설정이고, 의미의 탐색이다. 그것은 절망과 어두운 힘에로의 환원이 아니라 자기 세계와 화해하려고 하는 필사의 노력이다. 그것은 시지프스의 끝없는 반복 속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성실(현대적 모랄 제시)이며 새로운 신화 창조에 대한 열망이다. 즉, 희망의 부

재 속에서 희망을 표현한다.

작품해설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작품을 하면서 연출로서 특별히 역점을 둔 사항은?

.많이 읽었다. 많이 읽지 않고 어떻게 이런 작품을 감히 공연 하겠는가? 특별히 역점을 둔 사항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고도를 기다리며」의 다른 공연과 비교해 달라. 무엇이 다른지?

너무 활동이 뜸한데, 연당에서 공연하는 작품이 계속 올라가야 하지 않나?

아직 단원도 적고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한건 사실이다. 그러나 극장은 상업적 흥행물을 연속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극장'의 개념과는 다르다. 극장은 예술적 표현의 장소이다. '운영을 위한 공연행위'나 '연속적인 공연을 통한 전시행위'의 유혹으로 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예술이고, 상연이 아니라 표현이다. 말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연당의 계획이 있다면?

진지한 배우들을 많이 배출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그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런 배우들이 모여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금 최우선의 과제다. 그리고 양식(형식)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한다. 1900 년대 이래 세계연극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작품들을 세계명작 시리즈로 계속 공연 할 예정이다. 창작극은 한국전통예술에 대한 공부와, 부산창작극 연구회에서 배출되는 좋은 희곡작가와 함께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 3~4년 내에 정말 우리식의 연극을 하고 싶다.

공연을 지켜 보겠다. 하고싶은 말은?

관객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웃다가 즐기다가 한자락 감동이라도 가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관객들이 많이 모여들어 연당이 망하지 않았으면 더욱 좋겠다.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의 문화후견인을 모십니다.

정기 관극 회원이 되십시오.

문화공간 연당 소극장과 친숙한 이웃이 되고 문화인이 되시는 길은

정기 관극 회원에 가입 하시어 적극적인 관객이 되시는 것입니다.

회원에게는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에서 주최하거나 기획하는

모든공연의 입장료와 각종 문화 강좌의 강습료를 3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안내 및 홍보자료를 현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가입비 및 연회비:3만원)

후원회원을 모십니다.

동래지역의 새로운 문화공간 연당 소극장의 안정된 작업과 존속을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에게는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에서 주최하는 모든 공연 및 행사에 초대 되시며

안내자료 일체를 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 후원회원

◎ 일 반 후원회비: 10 만 원

◎ 매 공연 및 행사시 초대권 2매 및 공연인쇄물을 우송해 드립니다.

● 특별 후원회원

◎ 후원금: 일시불 50 만 원

◎ 매공연 및 행사시 초대권 4매 및 공연인쇄물을 보내 드립니다.

● VIP후원 회원

◎ 후원금: 일시불 100 만 원

◎ 매 공연 및 행사시 VIP 회원카드에 의하여 가족동반 및 VIP로 모십니다.

◎ 모든 공연 인쇄물을 보내 드립니다.

◎ 연당소극장의 영구회원 자격이 되십니다.

♣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은 동남은행 018-110 04-72 1 (예금주:이성규) 로 온라인 송금 해 주시고
극장전화 556-2232로 연락 주십시오.

연극은 사랑의, 열병처럼, 헌신적이고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연극에의 길은

항상 어렵고 끝 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에서는 전속극단인[부두연극단],

[연사랑패]와 함께 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극을 이미 경험한적이 있는 -대학극 포함- 사람이거나

다른 예술장르에 특기나 소질이 있는 사람은 물론

연극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도 가능합니다.

함께 연극인으로 동참할 참신한 새가족을

문화공간 연당소극장의 개관과 더불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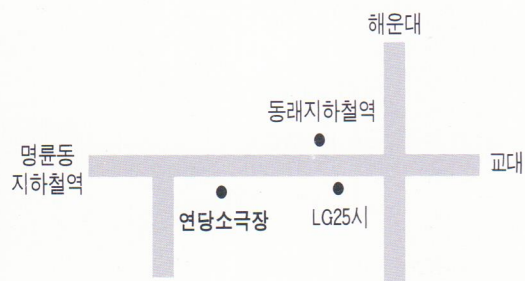
■ 모집분야: 연기, 연출, 무대미술, 조명 등 스태프 전분야

■ 문의 및 연락처: 556 - 2 232 (문 화 공 간 연당소극장 기획실)

**“문화공간 연당소극장과
함께 할 새가족을 모집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아직도 고도는 오지 않는다



연당소극장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1436-2

TEL : 556-2232